

<http://www.ointment.co.kr>

< 부치지 못한 편지 >

작사 : 이하늘  
작곡 : 이하늘  
노래 : DJ DOC

디제이  
디오씨



힘든 날 바라보면  
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 
울지마 바보같아  
그런 날 보면 내가 더 미칠 것 같아

이건 논픽션 리얼 스토리 씬데이  
그날은 달이 참 밝은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  
새벽 2시쯤 됐을거야 그치 DOC  
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  
씻고 잠들기 전에  
그녀와 통화를 위해 전화를 걸었어  
근데 그녀가 다른 때와는 조금 많이 달랐어  
에이, 아닐꺼야 아니야  
아닐꺼라 그렇게 믿었지만  
이 불확실한 느낌은 말야 나도 모르게 나를  
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했어

그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 
전화를 걸었지만 꺼져있는 전화기  
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  
만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침묵만이  
다시 문을 두드렸지  
그때 안에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남자소리  
나는 화가나 쓰나미처럼  
참고있던 모든게 터져버렸어

창문을 깬어 들어갔어  
손간 쫓아있는 네 얼굴을 봤어  
깨어 순간 난 돌았고 넌 튀었어  
그때 넌 정말 칼루이스 보다 더 빨랐어 u know

힘든 날 바라보면  
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 
울지마 바보같아  
그런 날 보면 내가 더 미칠 것 같아

내가 형이라 부르던 사람  
그 사람과 이 세상 하나뿐인 내 사랑이  
한방에서 뒤엉켜 있는 그 모습을  
그 더러운 손간을 아직도 잊지못해  
이 노래는 그 동안 누구에게도

말하지 못한 불히지 못한 한 통에 편지

아무도 몰래 내 맘속에 깊이 깊이  
묻어놔던 내 첫사랑 내 청춘의 일기  
Yo! 개장수 네가 다시 던졌으니 받아줄께  
잘 들어봐 Listen!  
oh! 너 귀는 잘들리지??  
음 그래 그래야지

너 흔히 말해서 네가 좀 잘나갈 때  
마치 놀이동산에 놀러 온  
정신 못 차리는 꼬마처럼  
이여자 저 여자를 놀이기구처럼 갈아 타 댔으  
그랬던 네가 방송에 나와  
그녀가 양다리였다 라고 다시 상처를 주네  
그러면 안돼 너 먹고 살자고 이제 와서  
그녀를 그런식으로 말하면 안돼  
네 덕분에 그녀를 알지 못하는  
진짜 병신 같은 것들이 그녀에게 샷대질을 해  
X 같은 년이라며 댓글을 달어 씨발  
내가 미친듯이 사랑했던 여자한테 말야

힘든 널 바라보면  
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 
울지마 바보같아  
그런 널 보면 내가 더 미칠 것 같아

나랑 풀었다고 풀기 뭘 풀어 이 등신아  
몇 년이 지나 약해진 네모습에  
괜히 마음약해져 나 혼자 푼거야  
어쩔 수 없는 용서 비슷한거  
그거 알아 네가 준 상처를 안고  
우린 3년이란 시간을 더했어  
깨진걸 붙여보려 흔적을 지워 보려  
기억 안나는 척 밥새 뒤척이며

너는 입이 가벼워 좀 많이  
지금 너 나보다 더 무거워 많이  
너 너를 위해 열지 말았어야 했어  
네가 연거 그건 판도라의 상자였어  
너 가져 가야 했어 끝까지  
이 더럽고 아픈 얘기  
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  
그냥 무덤까지 갔고 가지 그랬어

힘든 널 바라보면  
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 
울지마 바보같아  
그런 널 보면 내가 더 미칠 것 같아

힘든 널 바라보면  
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 
울지마 바보같이  
그런 널 보면 내가 더 미칠 것 같아